

# 우리나라 철학서적출판의 어제와 오늘

## 「한국 철학서적출판에 대한 실태분석」

朱尚姬

서광사 편집장

해방 이후부터 1990년까지 출판된 우리나라 철학서적의 실태를 분석한 논문이 발표됐다. 철학전문출판사인 서광사의 편집장 주상희씨에 의해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된 「韓國哲學書籍出版에 대한 實態分析」은 우리나라 철학서적 출판의 양적 파악을 통해 시대구분과 사적 고찰, 분야별 특징 등을 분석, 현단계 한국 철학서적 출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다음에 그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 시대구분 및 史的 고찰

현대 한국에서의 철학을 말할 때 그 시기는 서양철학이 한국에 들어온 이후를 말하게 된다. 구한말 서양철학이 들어와 193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철학연구가 시작되었던 제1기 서양철학 수용기(구한말-해방이전)에는 일제하에서 한글로 된 철학서적이 출판되기 시작했던 특징을 보인다. 제2기인 철학서적 출판 태동기(해방이후-6.25)에는 해방직후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자 마르크스주의철학이 한국역사상 가장 거리낌 없이 출판되었다. 제3기인 계몽적 철학서적 출판기(6.25전쟁-5.16혁명)는 전쟁후의 허무주의적 경향과 미국의 영향으로 실존주의와 실용주의 관련서적이 출판되고 해방 이후 철학자들이 청년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던 시기이다. 제4기인 교양적 철학서적 출판기(5.16혁명-1972)는 5.16 군사정부의 등장으로 이데올로기 관련서적은 퇴조하고 전집 출판물이 주를 이루면서 사상전집, 인생론집 등의 출판형태가 활발했다.

제5기인 대중적 철학서적 출판기(1972-1981)는 문고본이 주를 이루면서 일반독자들이 철학서적을 가까이 하게 되었다. 문고에 포함되었던 서적의 대부분은 철학교양서와 동서양의 철학고전이었는데 이 시기의 또다른 특징은 한국철학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던만큼 출판도 활발했다는 점이다. 제6기인 의식적 철학서적 출판기(1982-1990)는 이념서적의 개방으로 이데올로기 서적 붐이 일면서 진보적인 출판사를 중심으로 마르크스주의서적이 활발하게 출판, 일반독자의 철학에 대한 높은 관심은 철학서적을 베스트셀러에 올려놓기도 했다.

한국철학서적의 분야별 특성을 보면 철학서적은 60년대초까지도 서양철학일변도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70년대에 들어와 동양철학분야

의 연구서적이 일정비율을 차지하게 된다. 철학사전의 경우 1963년 학원사의 「철학대사전」이 출판된 이래 양적, 질적으로 빈곤한 상태이다. 철학일반의 '철학이론서'는 교재용 위주의 저서가 많이 출판되었는데 철학과 교수들이 철학개론서 출판에 참여한 비율은 매우 높다. '철학교양서'는 6.25전쟁 이후 인생론 중심으로 많이 출판되었으며, 전쟁 이후의 폐허 상태에서 많은 이들에게 삶에 대한 가치관을 제시해 주는 서적이 선호도도 높았지만, 당시에는 학자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기에 이들 책이 미치는 영향력도 컸다. 1980년대에 들어 명상서적이 지닌 문제점으로 인해 계속 논란이 일면서도 주기적으로 붐을 이루고 있다.

서양철학서적의 대부분은 서양고전에 대한 중복출판인데, 해방직후에는 마르크스주의철학, 6.25전쟁 이후에는 실존철학, 7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동시대의 관심사인 분석철학의 비중이 높았다. 80년대에는 이데올로기 서적의 개방으로 사회철학 서적이 다양하게 출판되었다. 논리학과 윤리학 서적의 대부분은 교재용으로 꾸준히 출판됐는데 전문학술서적 중심이어서 일반독자들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 기타 철학교육, 역사철학, 미학, 교육철학, 법철학 등은 어느 정도 출판이 이뤄지고 있으나 정치철학, 종교철학에 대해서는 출판된 서적이 매우 적다.

### 시기별 특징과 출판상황

해방 이후 1990년까지 출판된 종수는 4087종으로서, 분야별로는 서양철학이 1283종으로 가장 많고, 철학일반 1291종, 동양철학 960종, 윤리학 99종, 논리학 74종, 형이상학 78종, 철학총류 105종, 기타 197종이다. 동양철학을 제외한 3127종은 넓은 의미의 서양철학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실제적으로는 출판서적의 77%가 서양철학일 정도로 한국의 철학서적 출판은 서양철학 일변도였다고 할 수 있다.

연도별 출판종수를 보면 해방 이후 철학개론서와 논리학, 서양철학(특히 사회철학) 서적을 중심으로 출판이 시작되어 1947년 23종, 1948년 28종을 출판할 정도로 활기를 띠었다. 6.25 전쟁을 겪으면서 침체되었으나 50년대 후반 들어 서양철학(실존철학), 철학교양(에세이)을 중심으로 활발히 출판되었다. 60년대에는 사상전집 출판물로 기획된 서양철학, 철

학일반과 동양고전 중심의 출판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60년대를 거쳐 철학서적출판은 1972년의 문고본의 대두와 1982년의 이념도서해체 붐을 타고 눈에 띄게 증가하는 기회가 된다. 특히 80년대 들어서 젊은 지식인 중심의 사회철학 분야의 책들이 활발히 출판되면서 철학의 대중화에 대한 요구가도 있었다. 그리고 80년대에는 철학일반, 동양철학, 서양철학(특히 사회철학, 실존철학, 현대철학)등이 각 분야별로 활발히 출판되면서 양적, 질적인 성장을 하였다.

90년대에는 순수한 학문적인 철학서적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일반인의 철학에 대한 요구 또한 높아졌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철학은 내친구」 「재미있는 철학노트」 등 '철학'이라는 용어를 친근하게 하려는 경향도 나타났다. 이 시기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동양철학 서적이 활발히 출판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90년 출판된 장자우화인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말라」(윤재근 지음, 동지)가 슈퍼 베스트셀러가 되어 장사붐을 이루면서 동양고전을 포함하여 동양철학 관련서적이 다양하게 출판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북방정책 영향으로 중공과 소련서적이 출판되는 것도 출판계의 신선한 바람이라고 할 수 있다.

출판된 4,087종의 저서 대 번역서의 비율은 30 : 70으로 번역서의 비율이 높는데 서양철학이 (84%)이 동양철학(7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저서의 비율이 높은 분야는 논리학, 윤리학 2개 분야이다. 동양철학에서는 번역으로 분류된 경학서적과 중국고전 및 한국고전 등은 어떻게 주석을 붙이고 풀이했는가에 따라 저서와 번역으로 분리되므로 실제로는 동양철학의 번역서 비율은 낮아진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책이 번역된 서양의 국외저자는 러셀로서 103종으로 가장 많고, 니체가 89종, 플라톤이 65종이다. 이외에 인도인인 크리슈나 무르티의 저작이 42종, 라즈니쉬의 저작이 31종, 중국인인 임어당의 저작이 33종, 미국의 IAPC(아동철학개발원)의 어린이 철학교육용 교재가 12종 번역되었다.

해방 이후 출판된 철학서적을 연 1종이라도 출판한 출판사를 연도별로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6.25 전쟁을 전후한 시기에는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 출판사의 수가 10개 이하로 줄어들었으며 둘째, 1973년부터 출판사의 수가 늘기 시작하다가 1982년 이후부터는 100개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70년

대에 들어서서 문고본이 활발히 출판되면서 한 단계의 발전을 이루다가, 80년대 들어 이념서적 출판이 활발해지면서 철학서적 출판이 성숙기에 이르렀음을 뜻한다.

### 철학서적 출판의 발전 위한 제언

해방 이후 철학서적을 한 종이이라도 출판한 출판사는 768개사로서 한 개 출판사당 평균 5.3종을 출판한 것이 된다. 철학서적을 20종 이상 출판한 출판사는 39개사로서, 이들 39개 출판사에서 출판한 종수는 1875종으로 전체 철학서적의 46%를 출판하였는데, 이는 39개 출판사가 1개 출판사당 평균 48종을 출판한 것이 된다. 출판사의 출판경향을 보면 크게 세계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①대학교재 중심의 출판사로서 박영사, 형설출판사, 일신사, 법문사, 경문사, 연세대 출판부, 서울대 출판부 등이 있고, ②전집 및 문고본 중심의 출판사는 을유문화사, 삼성출판사, 대양서적, 휘문출판사, 삼중당, 금성출판사, 집문당, 청산문화사, 삼성미술문화재단, 상서각, 양우당 등으로 이들 출판사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③단행본 중심의 출판사는 서광사, 종로서적, 문예출판사, 범우사, 정음사, 현암사, 청하, 민음사 등으로 이들 출판사는 대부분 70년대 이후에 들어와 철학서적을 출판하였다.

철학서적은 상업성이 적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문학서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데 연구자도 동의한다. 하지만 철학서적이 상업성이 적은 것이 아니라 상업성이 있게 책을 출판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의 철학자들은 강의용 교재개발에도 역력이 없을 정도였고, 출판사들은 위험부담이 적은 책에 대한 중복출판을 위주로 하였다. 동서양고전의 중복출판의 대부분이 기존 번역자의 번역을 그대로 사용하였을 뿐 새로운 시도를 거의 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자는 철학서적출판의 발전을 위해 1. 고전철학의 번역을 학위 취득 요건으로 추가 2.역자의 계속적 책임을 위한 인세 계약 3. 연구서 출판 4. 학위논문의 활발한 출판 5. 대중성 있는 동서양 고전 번역의 학자 참여 6. 철학용어에 대한 알기쉬운 설명 7. 출판의 전문화 등을 제언한다.